



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4라운드 FC안양과 안산 그리너스FC의 경기에서 안양 아코스티(10번)가 득점에 성공한 뒤 안드리고(8번)와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C안양, 안산 그리너스 대파 ‘3위’ 도약

안양 아코스티, 안드리고 나란히 멀티골 4-1 대승
부천FC, 대전 시티즌 2-0 제압 2연승 질주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이 안산 그리너스FC를 대파하고 3연승을 질주했다.

안양은 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24라운드 안산과 원정경기에서 외국인 듀오 아코스티와 안드리고의 멀티골을 앞세워 4-1로 완승을 거뒀다.

최근 3연승을 달린 안양은 10승 7무 5패, 승점 37점으로 리그 2위 대전 하나시티즌(10승 8무 4패, 승점 38점)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며 리그 3위로 도약했다.

2연패에 빠진 안산은 3승 8무 11패, 승점 17점으로 10위를 유지했다.

안양은 이날 경기시작 2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기선을 잡았다.

안드리고와 뒤에서 길게 넘긴 패스를 받은 아코스티가 상대의 뒷공간으로 쇄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1-0으로 앞선 안양은 안드리고와 아코스티가 안산의 수비 조직력을 흔드는 공간 침투로 득점 기회를 노렸고 전반 14분 안산 진영 페널티박스 안으로 치고들어간 아코스티가 상대 수비수 이 와세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전반 16분 키커로 나선 안드리고가 골을 성공시켜 2-0을 만들었다.

안드리고는 이 골로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다.

반격에 나선 안산은 전반 28분 역습상황에서 김경준이 안양 수비수 박종현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직접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2-1로 추격했다.

2-1로 쫓긴 안양은 전반 35분 조나탄의 문전 헤딩 골이 오프사

이드 판정으로 무산되며 전반을 2-1로 마쳤다.

후반들어 공세를 높인 안양은 후반 28분 아코스티가 원발 감아 차기 슈트로 멀티골을 완성한 데 이어 후반 45분에는 안드리고와 켈기골을 터트리며 안산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부천FC1995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조현택과 김호남의 득점포를 앞세워 대전을 2-0으로 제압했다.

리그 2연승을 달린 부천은 11승 4무 7패, 승점 37점으로 안양과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안양 26골, 부천 25골)에서 뒤져 4위에 올랐다.

부천은 전반 16분 만에 상대의 골문을 열었다.

김호남-이시현-오재혁을 거쳐 연결된 패스를 받은 조현택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원발 슈트로 선제 결승골을 기록했다.

이어 전반 40분에는 코너킥 상황 이후 날슨 주니어가 내준 공을 김호남이 달려들며 오른발로 차 넣어 추가 골까지 뽑아냈다.

2-0으로 앞서가던 부천은 후반 25분 민준영의 프리킥에 이은 조유민의 헤딩골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이후 골키퍼 최철원의 선방쇼가 펼쳐지며 1골 차 승리를 지켰다.

김포솔터축구장에서는 김포FC와 광주FC가 0-0으로 비겼다.

득점 없이 전반을 마친 가운데 김포는 후반 40분 박경록의 헤딩이 골대를 살짝 벗어났고, 광주는 후반 추가 시간 정호연이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찬 슈트 상대 골키퍼에게 막혀 끝내 균형을 깨지 못했다.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김포는 5승 7무 10패, 승점 22점으로 5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한편 K리그1 최하위 성남FC는 강원FC와 홈 경기에서 후반에 만 2골을 내줘 0-2로 패했다.

성남은 2승 6무 11패, 승점 12점에 머물며 꼴찌 탈출 희망을 살리지 못했다.

정민수 기자

발안중 남가현, 전국종별펜싱선수권 우승

에베 개인전 결승서 ‘동향’ 고동연 제압
올 시즌 전국대회 개인전 첫 우승 영예

‘한국 남자 펜싱 에베 기대주’ 남가현(화성 발안중)이 제60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승섭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남가현은 3일 충북 제천시 어울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자중등부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 ‘동향 라이벌’ 고동연(화성 하길중)을 15-8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3월 열린 회장배 전국종별선수권과 5월 중구펜싱연맹회장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발안중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지만 개인전에서 우승 경험에 없었던 남가현은 이날 준결승전에서 윤영도(서울제중)를 15-1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남가현은 올해 회장배 대회 우승자이자 4강에서 노의현(발안중)을 15-7로 꺾은 고동연을 맞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은 뒤 줄곧 이어가며 7점 차 승리를 챙겼다.

또 남일반 에베 개인전 결승에서는 이승현(화성시청)이 정재원(국군체육부대)을 15-9로 가볍게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이승현은 4강에서 정효민(울산시청)을 15-12로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한 뒤 정재원을 상대로 시종일관 리드를 이어가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남자중등부 에베 개인전에서 우승한 남가현(화성 발안중·가운데)이 같은 종목 3위에 오른 팀 동료 노의현(오른쪽), 여중부 에베 개인전 동메달리스트 방효정(발안중)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성 발안중 펜싱부 제공

여중부 에베 개인전에서는 방효정(발안중)과 김다인(수원 동성중)이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했다.

방효정과 김다인은 4강에서 박형은(서울 창문여중)과 오은빈(전북 이리북중)에게 각각 11-15, 12-15로 패해 아쉽게 결승진출에 실패하며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남중부 사브르 개인전 4강에서는 김윤서(안산 성안중)와 이승빈(인천 관교중)이 임성민(부산 양운중)과 이찬서(대구 오성중)에게 10-15, 9-15로 패해 나란히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중부 사브르 개인전에서는 김서은(수원 구운중)이 4강에서 박다선(서울제중)에게 9-15로 저 3위에 입선했다.

정민수 기자

“스포츠메카 도시답게 생활체육 적극 지원할 것”

인터뷰 박광국 수원특례시체육회장

“스포츠메카 도시답게 생활 체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수원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일 수원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공식 개회식을 열고 대장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및 국회의원, 시·도의회의원, 종목단체장, 수원시체육회 임원 및 스포츠응원단, 종목별 선수단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은 각 종목별 동호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열린 1회 대회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식행사를 치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광국 수원특례시체육회장은 현장 분위기 에 한껏 고무된 표정을 지었다.

박광국 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기에 이번 대회는 사실상 1회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시 생활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놀라워하셨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체육계 저변 확대를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박 회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결국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도 부족한 형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일 공식 개회식을 연 가운데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이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세영 기자

편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동호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올 하반기 굵직한 대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8월 25일부터 3일간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이어지고 10월 7일부터는 일주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

박 회장은 “전국대회에 나가면 수원시가 항상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 시에서 보내는 적극적인 관심 덕분”이라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느 대회든지 간에 수원시체육회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영 기자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 대장정 돌입

2일 오전 수원시배드민턴경기장서 ‘통합 개회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생활스포츠 강한 수원 되도록 노력할 것”

“스포츠는 곧 복지입니다. 시민 분들이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회 수원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가 2일 수원시배드민턴경기장(장안구 정조로 1067)에서 공식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 및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종목단체장 및 임원 등 주요 내빈 총 191명이 참석하였으며 종목별 선수단은 종목당 15명씩 참가했다.

행사는 개회선언(수원시체육회 부회장), 대회사(수원시체육회 회장), 환영사(수원특례시장), 선수대표 인사(수원시체육회장/선수대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개회식 이후에는 각종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에 이어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도 열렸다.

전날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해 첫 외부행

사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환영사를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다수의 건강도 중요하다. 스포츠는 곧 복지다. 시민 분들이 운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모시겠다. 말씀도 열심히 듣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겠다. 수원특례시가 ‘생활스포츠가 강한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육인들은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일상회복 단계로 수원 시민의 가장 큰 행사인 생활체육대회를 열게 돼 기쁘다. 시민들의 활기찬 체육활동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면서 “수원특례시는 스포츠 메카 도시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민선 8기 취임식을 마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다. 사진=김세영 기자

노력을 기울이겠다. 수원시체육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갖고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검도, 게이트볼, 골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수영, 수중핀수영, 아이스하키, 양궁, 유도, 축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파크골프 등 총 18개 종목대회가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